



간호학과 편입생의 체험

신 경 림¹⁾ · 차 은 정²⁾ · 김 영 혜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새로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의 각 부분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교육 개혁은 최근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함께 널리 사용된 용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급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교육 개혁의 도전은 더욱 민감하고 빠른 속도로 다가와 각 대학에서 정보화, 세계화의 비전을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 1994). 즉 전문적이면서 동시에 다학제적인 교육을 통해 학문간 경계를 넘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양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변화 중 하나는 대학의 편입학제도의 확대 실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사행정에 또 다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편입학 제도는 1981년까지는 단지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정도였다. 이후 졸업정원제, 입학정원제 등을 거치면서도 편입생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 5월의 교육개혁안에 따라 그해 12월에 대학 학생 정원령이 개정되면서, 편입생수가 급격히 늘어 1995년에 3,748명에서 1998년에는 45,700여 명으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 1999). 이후에도 1998년의 대학편입학제도 개선방안, 1999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이 발표되면서 편입학, 전과 등이 보다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편입학이 거의 전무했던 의료관련학과도 1998년 이후 이런 제도 개선에 힘입어 편입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타 학과를 마치고 다시 들어오는 학사편입생과 타 학과를 2년까지 다니다 들어오는 일반편입생의 수가 간호학과에서도 날로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었던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각 대학은 편입학생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신입생과는 다르게 이미 타 대학에서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재 수학의 기회를 갖는 편입생들은 연령, 전공, 새로운 대학문화 적응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예견되는 바이다.

현재 편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대학들이 이런 문제점을 위한 대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의 학습과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을 3학년부터 병행하게 되어 있어 (Shin, 1996), 편입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체험을 파악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후 편입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과과정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편입생이 체험한 편입 경험이

주요어 : 간호학생, 체험, 질적연구

1)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2)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3)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강사

투고일: 2003년 1월 21일 심사완료일: 2003년 10월 14일

뜻인지 서술하여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편입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편입생들을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과과정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당신이 체험한 편입 경험은 어떤 것인가?'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편입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을 개인이 경험하는 대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에 있는 E대학 간호학과에 학사 편입 후 졸업한 간호사들과 일반 및 학사 편입후 재학중인 학생들이었다. 편입학 후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는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동의한 자 6명으로부터 자신의 편입경험에 대한 자가보고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재학중인 학생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심층 면담을 통해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총 8 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자준비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 3인의 질적 연구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서로 반추해 보았으며, 자료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문헌고찰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모여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을 정하는 등 연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1차 적으로 편입 후 졸업한 간호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체험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서술한 자가보고서를 기초로 심층면담을 통해 2차 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은 2002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회수는 참여자별로 1-3회 수행되었고, 1회 면접 시 1- 1.5 시간을 소요하였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면담직후 연구자에 의해 필사되었다.

자료분석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자료분석과정은 Colaizzi, Giorgi, Van Kaam 등이 발전시킨 방법들을 주로 사용해 왔다. Crotty(Shin, 2001에 인용됨)는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전체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위해 연합한 자료들로부터 주제들이나 범주들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공통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면담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 확인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네 가지 항목(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

결 과

간호학과에 학사 편입 후 졸업한 간호사 6명과 현재 재학중인 일반편입생 4명, 학사편입생 4명 총 14명의 참여자들에 대한 편입체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31개의 주제, 14개의 주제모음, 6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도출된 범주와 주제모음, 주제와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늘 걱정함

참여자들은 편입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학원에서 나눠준 편입 체험담이나 학원 동기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사전정보를 갖고 있었고, '나' 역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약상 편입에는 성공했지만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편입생은 찬밥신세이며 공부 떠나가기도 힘들고 적응하

<표 1> 간호학과 편입생의 체험에 대한 범주

범 주	주제모음	주 제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늘 걱정함	관계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	편입생은 늘 찬밥신세이다 재학생들과 원만한 관계형성 어렵다 학업보다 인간관계가 더 걱정스럽다
	이질감	냉랭히 대한다고 느꼈다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축됨	편입생활을 포기하게 되는게 아닐까 하고 두렵다 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내 느끼는 부담감	연령차이로 인한 부담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취업시 불이익이 걱정된다 동기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나 걱정된다
	부담스런 교과과정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다 기초지식 부족으로 힘들다
	신체적인 부담감	연이은 실습, 수업으로 지친다 질환으로 휴학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 부담감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이 죄송스럽다 장학금, 아르바이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실습조”가 고마움	적응에 도움을 받음	많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조별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정들게 되었다
편입생 끼리끼리 버팀목이 됨 원하는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	서로에게 의지가 됨	서로 의지가 된다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된다
	원하는 것을 선택함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비밀리에 편입준비를 시작했다 힘들지만 즐겁다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다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책임감	전공공부를 진지하게 하게됨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자신을 늘 추스르게 된다 재학생들은 전공에 확신이 없는 듯이 보인다
	전공에 대한 현실적 안목	전공과 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전공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한다

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 왔기 때문이죠.” “예전에 학원에서 나눠준 편입한 사람들의 합격담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건 재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이었다. 일종에 텃새 타고나랴?”

그리고 실제 편입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선입견 때문인지 재학생들이 냉담하게 자신들을 바라본다고 느꼈으며 또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생물학적인 나이차로 인해 호칭문제가 생겼으며, 심지어 동아리 가입조차 어려웠다.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전공과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공유 할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없어 재학생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려는 노력 등을 통해 이러한 이질감이나 낯설음, 소외감, 겉도는 느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나아졌지만 편입생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존재하였다. 편입생들이 느끼는 이질감은 정도가 감소되었으나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편입 했을 때의 아이들의 눈은 한라디로 냉랭했어요. 처음 교실에 왔을 때 웬 사람들이냐며 익게인 보듯 했어요. 나

자신은 마치 자신들만의 집단에 이 몸집이 들어 온 것 마냥 보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편입생들에게 걸으려는 잘 해주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자료 위치 등을 물어 보면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아서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나이트 이전에 전공했던 것도 사회경험도 모두 닳았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놀이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이나 실습을 제척하고는 몇몇 복학생이나 친한 동기를 제척하고는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중간에 끼어 든 것 같은 신입자 같은 이질감이나 낯설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석되어 가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학번들의 이질감은 졸업하기 전까지도 여전히 잠재하는 것이었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참여자들은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은 실제 편입생활에서 재학생들과의 이질감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구체화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나이 차를 나타내지 않으려 하였으며 튀지 않고 동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점점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졌다.

“충방선이 같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 행복을 같이 해야 되는 나라는 존재가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혹은 캠퍼스라도 당하지 않을까,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 어렵사리 시작한 공부들을 포기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전혀 생소한 환경에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소신해 지고 조심스러워졌었던 것 같아요.”

“되도록 튀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이차이를 보이면 다른 친구들이 부담이나 서먹함을 더 느낄 것 같아서 같이 편입한 친구또래로 이야기도 했었고, 우선은 되도록 내가 앞장서지 않는 상태로 이끌어 갔어요.”

내내 느끼는 부담감

남들보다 간호학을 늦게 시작함에 따라 휴학이나 변경의 여지가 없었으며, 어학 연수 등을 고려하기 어려웠다. 신규 간호사 채용위주의 취업구조에서, 남들보다 많은 나이로 인해 졸업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 앞서고, 재학생들에게는 나이가 많은 자신이 짐스런 존재는 아닌지 하는 걱정을 늘 하게 되어 나이가 많은 것 자체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여러모로 정상적인 순서에서 벗어난 길을 가려고 하니깐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면접 볼 때나 아니면 나중에 졸업하고 난 후 취업할 때 나이로 인해 불리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또한 참여자들은 편입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존 교과 과정에 맞춰 2년 안에 졸업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간호학과와 특성상 실습과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압박한 일정을 갖게 되는데 특히 편입생들에 경우 이수할 학점이 많아 실습과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다. 전공필수 과목을 듣기 위해 실습 후 다시 허겁지겁 학교로 와야하거나, 빈번히 바뀌는 교과과정으로 인해 졸업에 필요한 과목이 이수되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편입생이라 이수할 학점이 많아서 실습이 끝나고 또 학교 수업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무척 피곤했어요.” “기초과목을 듣기 위해 매 학기마다 동급생보다 1과목을 더 신청하여 들었고, 계절학기를 이용해 나머지는 보충하여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두 과목이 모자라서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어요.” “혼자 생각한 끝에 학칙이나 여러 규칙을 살펴본 후에 **과목을 따로 신청 했어

야 했는데 ○○학번에는 필수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마지막 학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졸업사정에서 필수로 되어 있지 않아도 3,4학년이 듣는 과목은 모두 들어야 된다는 규정에서 걸리는 바깥에 졸업이 되지 못했어요. 나이는 다 차서, 2년이면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래저래 늦어져 4년을 보낸 것이니까 편입한 보람도 없고 집에 볼 면목도 없고 해서 마지막 1년은 처인처럼 지냈어요.”

제도적으로 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된 수업, 시험 등은 편입생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으며, 주된 임상실습지인 병원은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국가고시에 따른 간호학과만의 객관식 시험문제 유형이나 그 외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확한 학사정보를 얻지 못해 학점에 불이익을 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따라가기 위해 몇 배의 노력과 시간투자가 필요하였으며, 별도로 기초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첫날 실습을 나갔는데 수업이 쏟아지는 낯선 용어들만 딱 접수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데, 연구원 선생님의 설명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참 내가 바보스럽게 느껴졌어요. 인상실습을 나가기 위해 사전준비가 제로였던 것이지요. 다음날 다시 맛났던 편입생들의 얼굴은 하나도 모르겠더라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별다른 준비 없이 실습에 나갔을 편입 동기들에게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당혹감 내지는 격려였으리라...” “사실 병원건축을 보기가 겁났던 때가 실습시장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초기에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 그 내용을 찾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동급생보다 3~4배 정도는 더 걸려야만 갠신키 따라 갈 수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학과 공부란 단순한 암기만 시험이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적용과 응용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암기로는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없으니 어려운 공부중의 하나였어요.” “3학년 1학기때 성적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서술식 문제였는데, ○○대에 와서 보니 글씨 객관식이 나오는데 아니겠어요?”

일정기간동안 재학생들보다 많은 학점이수로 인한 압박한 일정으로 이들은 지치게 되고 심지어 질환에 이환 되어 한 학기나 일년을 휴학해야 하는 경우까지 경험하게 되는 등 신체적으로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3학년 실습하면서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수업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병이 나뉘어가요. 아~ 그렇게 하니깐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한다거나 다시 1년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생겨요.” “특히나 편입하여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늦은 나이에

신규 간호사가 되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건 육체적인 힘들이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떠나 주지 않는 아픔이 우리 편입생들에게는 한가지 어려움을 더하는 것 같다.”

또한 편입생활은 또래보다 몇 년 더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이 더 길어지게 되어 미안하고 부담이 되었다. 학과의 특성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힘든 상황이고 편입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도 없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학교를 다니자니 가족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등록금도 모두 내 능력으로 갚아야 할터서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다른 학교는 편입 장학금이 있다고 해서 편입할 때 주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사실 저런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자기가 버는 사당도 있고 진짜 힘들게 다니거든요. 입학하고 나서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직전학기 성적이 없다고 해서 안됐거든요.”

"실습조"가 고마움

3학년부터 시작되는 임상실습은 학교생활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임상실습은 7-8명으로 구성된 실습조별로 이루어지게 되고 한 한기동안 지속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 "실습조"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교환되고 실습과제 뿐 아니라 시험준비, 논문작성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편입생인 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내가 편입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건, 간호학과는 실습조 별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3학년때부터 임상실습이 수업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실습은 조별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조 모임은 실습때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여서 같이 숙제를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같이 논문 쓰고, 일을 조원이 함께 분담해요. 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내 편입생활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실습조는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잦은 접촉을 통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정이 들게 되기도 하였다.

“괜한 선입견으로 에너지가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남녀공학이라 여대의 특성이 다르다는걸, 어울리는 방식이 나 분위기, 뭐 그런거죠... 쯤파티때 그때 알게 되었죠.” “사람들의 성격도 드러나게 되는 실습 조의 구성원원은 나한테서 서로에게 정이 들어서 꽤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리던 동료들이 실습 조를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간에 오해도 풀리게 되고 서로 이해하기도 하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었어요.”

편입생끼리끼리 버팀목이 됨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편입생들이지만, 늦은 나이에 간호학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자신들을 쉽게 친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서로 의지가 되어 힘든 시기를 견디어 내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 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졸업 후에도 지속될 정도로 진실하고 깊은 인간관계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나만 너무나도 비슷한 처지에 같은 나이에 생각도 너무 잘 맞는 친구였어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같은 도전을 같은 처지에서 하게되니 서로의 어려움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나태해 질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순간순간을 견디어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짝 친구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큰 버팀목이 되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

참여자들은 입시제도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전공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겪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랜 숙고 끝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편입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은 자신의 적성, 재능을 고려하고 또한 원하는 삶의 형태에 일치하는 전공인 간호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편입준비를 하는 과정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주변의 시선 때문에 비밀리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합격이 된 후 부모나 친척, 친구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고등학교시절엔 내가 좋아했던 수업 중 하나인 교편시간에 선생님의 ○○대 간호학과를 다니시던 시절의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으며 간호학으로의 진학을 잠정적으로 결정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점수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대 ○○학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4학년 말경 이쪽은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대 등을 편입할 선배를 찾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 보았어요”

“회사에 취직할 때부터 오래 다녔 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넘기면서 여행준비를 천천히 시작했어요. ...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 내가 간호학을 선택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었어요. 그들은 나에게 남을 돕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배웠던 것을 직접 입상에 적용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었고... 간호학은 내 생리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선뜻 허락해 주시지도 않았고, 학비도 없었고, 정보도 부족했고 준비도 모자랐어요. 알고 보니 다른 거에 비해 편입의 문도 좁았어요. ...장녀인 내가 부모님의 눈치를 타야 했어요. 계속 어떤 직업을 가장 계획인지 물어 보시는 데 난 할말이 없었고, 그래서 졸업하고도 이중생활을 했어요. ... 그때 난 등산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정상에 오르면서 나의 모자란 지구력을 양성해 보았고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매일 성경을 통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참여자들은 어렵게 얻은 새로운 기회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에, 어려모로 힘들어도 즐겁게 지낼 수 있고, 하나 하나 알아 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편입을 준비할 때의 간절함, 편입생활동안의 힘들지만 즐겁게 보냈던 추억들은 이후의 삶에도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 전처에서 내려서 학교로 가는 길에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특히 날씨가 청량한 날, 교문을 들어가면서 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주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내가 행운아인가 하는 기쁨에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를 다녔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쁨 또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내 삶의 현상이 갖는 의미 또한 그 어려움의 크기 만큼이나 커져 간다는 것을 더 강조하여 말하고 싶어요.”

“병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정말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편입 준비할 때의 간절했던 첫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열기장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간호사가 되고 싶어했는지 그 간절한 바램들이 담겨 있어요.”

다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책임감

참여자들은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선택한 전공이기에 열심히 전공공부를 하게 되고 재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게 된다고 한다. 재학생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잠을 줄이며 공부하게 되고, 실습에 대한 걱정은 편입생들끼리 서로 실습을 해보거나 심지어 간호학원을 다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자의로 시작하여 때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기에 ... 어떤 때 보다 비장 했던 것 같아요. 갈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의로 시작한 공부였기에 무책임하지 않았고, 공부에 대한 경심이 낡달았고 진지했어요.”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나를 더 다그치는 계기가 되었고 זאת 죽이고 공부를 더 했다.” “편입 학생이 바쁘고 나서 바로 실습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실습 나가는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 간호학원을 다녀요.”

이전의 다른 전공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되는 원숙함 등으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재학생들과는 달리 전공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다. 전공분야에서의 나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전공의 현실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취업에서는 간호중재의 하나로 조정요법과 원예치료가 실시되고 있다고 해요. ... 새로운 간호중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수확기를 졸업 했거든요. 논문을 쓸 때 통계학도 필요하잖아요. 대학원 쪽에서 좀 더 공부해 볼까 해요.” “편입생들은 뭔가 나이가 들어서 그 전지 넓게 보는 것 같아요. 비교대상이 많으니까. 주변에 편입생들한테는 교수님이 읽어주는 공이하는 게 다 약 당는 게 아니나...” “하나의 전문직이라는... 힘을 딱 부가 시켜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체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최종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게 되며, 나이 차를 들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였다. 막상 편입생활이 시작되자 기존에 짜여진 교과과정에 맞춰 졸업학점을 이수하기에는 제도적 배려가 없어 힘들었고, 학과의 특성상 임상실습을 병행해야하는 수업은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되어 당혹감을 주었다.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나이, 교과과정, 신체적, 경제적 등 여러 방면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과 원하는 삶의 형태에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편입생들이 자신과의 싸움으로 비밀리에 편입준비를 하게되었다. 따라서 학업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고 진지하였다. 편입 생활 중 임상실습이 실습조별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져 인간관계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으며, 한편 같은 처지에 있는 편입생들끼리 서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힘든 편입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원하는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에 감사하며 다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6가지 범주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편입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편입학 초기에 연령차, 편입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이방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졸업 때까지 내내 그 생각은 양금처럼 남아있었다. 편입하여 재학중인 대상자들 중에는 아예 재학생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편입생들끼리 잘 맞춰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방인 취급을 받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전공, 대학에서의 학업이라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일 대학의 연구결과를 볼 때, 편입학 후 휴학을 하거나 휴학을 고려해 본 학생들의 주된 이유가 일반 편입생들의 경우 친구들과의 어려움(27%), 진로문제(27%)로 나타났고, 편입학 후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도 편입학생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31%)으로 나타나 (Lee, 2000), Horne(1993)이 지적하듯이 기관 배타주의성향으로 인해 편입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관 배타주의는 궁극적으로 그 기관의 발전적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수용적 태도로 각계 각층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간호학의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편입학생들이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선정기준은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 전공의 장래성, 대학의 사회적 인지도 순 이라고 한다(Kim & Oh, 1997). 즉 편입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여 2차 전공을 선택함을 알 수 있다. 일 대학의 경우 상경대, 의과대, 간호대 등은 90% 이상이 학사편입으로 졸업 후 진로와 취업에 관련하여 편입하려는 경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간호학을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설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선택하였다. 취업 기회가 보장되며, 임금도 어느 정도는 보장된다는 다분히 현실적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간호 교육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학생들이 간호 전문직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 했다가 보다는 막연히 동경해오던 꿈의 성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간호 학생들의 대부분은 간호를 사람들을 보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Vanhanen & Janhonen, 2000). 이와 함께 간호 학생들이 전문직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일치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다(Rawlins, 1991). 최근 간호교육에서 전문직 가치에 강조를 두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Snider, 2001). 이를 통해 전문직 실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문직 실무에 합당한 가치체계의 확인을 요구, 전문직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이해가 교육경

험초기에 심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편입 학생들도 간호학의 전문직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 할 필요가 있으면,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이후의 학습성취와 간호사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편입 후 학생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학점 체계이다. 각 대학마다 전공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편입학생은 수강 신청서 교과목의 제목과 그 내용상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겪게 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여도 편입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의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목신청은 물론 이수학점인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입 후 학생들은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교공부, 적성과 진로문제, 시간 및 생활관리 문제를 들 정도이다. 편입 학생들은 자신들을 재학생들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학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번이 달라 교과목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각 부처를 일일이 다니며 허가를 받아야 했고, 필수 교과목수강을 위해 안절부절 못 하거나 수강이 불확실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습동안 간호 학생들의 힘듦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 연구에서도 간호학생들은 정서적 힘듦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거나 감정을 얘기하거나 경험을 논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Allcock, 2001).

한편 편입 학생들은 편입 전부터 편입기간 내내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편입 전에는 남들보다 뒤늦게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서 부담을 느낀다. 편입 기간 동안은 추가로 더 드는 학비, 성적, 체력 등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낀다. 그리고 졸업 후를 생각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부담감을 느낀다. 간호학과 편입생의 경우 학교수업과 임상실습이 병행되는 빡빡한 일정으로 아르바이트 등은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학비에 대한 부담은 부모에게 거의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 일 연구에 의하면 편입 학생들은 편입 후 학비는 대부분 부모가 부담(83%)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ee, 2000)고는 하지만, 편입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전학기 성적이 없어 근로장학금 조차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유연성 있게 운용하거나, 편입 후 졸업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학업관련 상담을 위한 상설적 창구를 만든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도움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편입 학생들은 좋은 교과과정을 통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할 동기화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 참여

자들도 생소하고 어렵지만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기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이 시행착오를 덜 하고 전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편입 학생들은 또한 이전의 전공을 간호학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다학제적인 생각을 학업 초기부터 하고 있는 미래가 요구하는 전문인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학사행정의 부분이 될 것이다.

한편 간호학과에서는 대개 임상실습을 7-8명정도로 조를 나누어 하게 된다. 조별 공부가 편입 학생들의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학기 마다 변하기는 하지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습을 하지 않는 다른 학과에서도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작은 동아리활동에 편입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하여 새로운 전공과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편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령, 전공 등이 다른 이들이 만남 초기부터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편입생활동안 그리고 졸업 후에도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편입생끼리 끼리 버팀목이 되는 것은 적응에 도움이 되나, 한편으로는 재학생과의 융화에는 꼭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들이 체험한 '편입경험'이 무엇인지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편입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편입생들을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과과정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 간호학과에 학사·일반 편입한 후 졸업한 간호사들과 재학생들 14명을 대상으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편입 체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늘 걱정함', '내내 느끼는 부담감', '실습조가 고마움', '편입생 끼리끼리 버팀목이 됨', '원하는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 '다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책임감'이다.

편입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충분히 동기화 되어있다. 그러나 기존 교과과정에 끼어 들게 되어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들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경험한다. 막상 편입생활이 시작되면서 제도적 배려가 없는 것과 학과의 특성상 임상실습을 병행해야하는 빡빡한 수업 일정, 기초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낀다.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갖게된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에 감사하며, 다시선택한 전공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임상실습에 있어 실습조별 수업방식이 인간관계 형성과 적응에 큰 도움이 되며, 아울러 편입생들 끼리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는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편입체험을 이해함으로써 증가하는 편입생들을 위한 제도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편입 학생들을 위한 상담창구와 안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편입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사관리 제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3) 기초가 부족한 편입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편입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입학생들이 지닌 막연한 피해의식을 배제시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타학과 편입생과 간호학과 편입생이 겪는 문제점들을 비교 분석해 간호학과 편입생만이 지니는 특유의 문제점을 재조명 해 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llcock, N., & Standen, P. (2001). Student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for patients in pain. *Int J Nurs Stud*, 38, 287-295.
-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 (1994). A reform plan of university education.
- Guba, E., & Lincoln, Y.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 Horne, C. D. (1993). *Ideological Barriers to Nursing Education for Returning RN Students*.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 Kim, T. Y., & Oh, K. H. (1997). A Survey of Consciousness of Mokwon university students on Transferring into the university. *The Korean Communication in Statistics*, 12(1), 176-196.
- Lee, E. K. (2000) A Study for transferring students's status, educational model and program development. *A study for students life*. 34, 28-50. Ewha Student Counseling Center.
- Ministry of Education (1999). *Conference data on guidance for provision reformation related to university matters and admissions methods for transferring into the university*.
- Rawlins, T., Riordan, J., Delamaide, G., Kilian, G. (1991). Student Nurse Recruitment: Determinants for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J Nurs Educa*, 30(5), 197-201.
- Shin, K. R. (2001).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 Press.

Shin, K. R.(1996).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Nursing. *J Korean Acad Adult Nurs*, 8(1). 156-168.

Snider, J. (2001). Ethics Instruction in Nursing Education. *J of*

Professional Nur, 17(1), 5.

Vanhanen, L., & Janhonen, 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s orientations to nursing. *J Adv Nurs*, 31(5), 1054-1062.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Shin, Kyung-Rim¹⁾ · Cha, Eun-Jeong²⁾ · Kim, Young-Hye³⁾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2) Center for Health Promotion, Samsung Medical Center

3) Part-time Instructor, Nursing Department,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s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4 graduates and undergraduates who enrolled in nursing school as transfer student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made by phenomi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Colaizzi(1978). **Result:** In this study, 6 essential themes were extracted: 'Constant anxiety of being a stranger', 'Feeling of constant burden', 'Thankfulness of a clinical practice group', 'Being supportive with each other between transferring students', 'Pleasure of studying a desired major', 'Feeling the responsibility of own choice of a new major', **Conclusion:** With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transferring stud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the field of nursing is that by understanding the transferr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t describes the need of systematic and emotional support for transferring students.

Key words : Students Nursing,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 Eun-Jeong

Center for Health Promotion, Samsung Medical Center

50, Ilwon-Dong, Kangnam-Ku, Seoul 135-710, Korea

Tel: +82-2-3410-6699 Fax: +82-2-3410-6698 E-mail: gayun@samsung.co.kr